"제주를 담다
미래를 읽다"
제주의 대표 신문 한라일보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856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3년 5월 2일 화요일(음력 3월 13일)

탐라해상풍력 지구 지정 변경안 다시 제동

지난달 28일 지구지정 변경안 심의서 보류 결정
발전 용량 30㎿→100㎿로 확장하는 내용 등 담아
유권해석 '변경 부합' 판단… 공공성 와해 우려도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 처리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탐라해상풍력발전 확장사업 지구지정(변경) 계획(안)을 놓고 심의를 진행했으나 의원들간의 이견으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다시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은 현재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 30㎿(3㎿×10기)를 100㎿로 확장하는 것으로, 72㎿(8㎿×9기)를 추가하는 것이다.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확장은 제2차 풍력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에 포함돼 있는 만큼 공공주도 개발 원칙으로 사업시행예정자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를 개발해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개발은 민간사업자인 탐라해상풍력발전(주)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지난 2021년 산업부와 국무조정실의 협의를 거친 결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은 신규 사업 아닌 확장 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시행예정자인 제주에너지공사의 지구개발과 사업자 공모절차 없이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 변경에 따른 제주도의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풍력발전 지구 지정 변경(확대)은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도내 다른 해상풍력발전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행원·월정, 한림해상풍력단지 민간사업자들도 기득권을 갖고 확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도내 한 풍력전문가는 "현재 월정리 앞바다에 5㎿가 설치돼 있는데 이들 민간사업자들이 규모를 더 늘릴 수 있게 허용해 줄 수 있다"며 "이 경우 민간주도 추진 확산으로 풍력자원의 공공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은 제주시 한경면 두모·금등리 해안 공유수면 일원 8만1070㎡(약 2만5000평)에 30㎿ 발전 설비를 갖추고 2018년 1월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고대로기자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도 3년 연장

법무부,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 시행 통보
투자금액 5억→10억으로 상향… 제도명 변경

외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난개발, 투기 논란으로 존폐 위기에 섰던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유지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자로 종료되는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일몰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투자 기준금액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해 문턱을 높였다. 제도 명칭 역시 현행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같이 개정된 내용은 법무부가 고시할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담길 예정이다.

투자 대상은 법무부의 제11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 전라남도 여수·경도, 부산시 해운대·동부산으로 정해졌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주에는 지난 2010년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영주권을 얻으면 참정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공교육 입학이 가능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도 주어진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제도 시행 종료를 앞두고 투자기준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보완 연장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강다혜기자

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승인·고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1일 고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제주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을 기존 하루 13만t에서 22만t으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제주시 동지역 주민 최대 44만3759명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하수처리시설은 모두 지하에 설치,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태숲과 산책로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 3927억원이 투입되며, 사업자는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맡고 있다.

하수 방류수 배출구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해안에서 1500m 떨어진 수심 40~50m지점에 설치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방류수질 기준을 계획유입수질(253.9㎎/L), 법적기준(10㎎/L) 등을 고려해 5㎎/L로 하기로 결정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삼색버드나무의 화려한 유혹 1일 서귀포시 표선면 보롬왓을 찾은 관광객들이 삼색버드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삼색버드나무는 '화이트 핑크 샐릭스(White Pink Salix)'라고 불리우며, 연두색·흰색·분홍색 등 세 가지 색깔의 잎을 틔워낸다. 꽃말은 '솔직한 사랑'. 이상국기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방역비상체계

도 "야외활동 증가로 집단 발생 우려… 주의해야"

제주자치도는 하절기(5~9월) 집단 설사환자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상황 공유 및 대응을 위해 5월부터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최근 기온 상승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야외 활동 증가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끓여 먹기, 익혀 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질병관리청, 보건소와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및 설사환자 집단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집단발생 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애향운동장 노인쉼터 철거 수순… 5면 /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7면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를 찾습니다

제주4·3사건(1947년 3월 1일 ~ 1954년 9월 21일) 당시 2차례의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은 2,530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재심 청구 추진을 위하여 수형인명부에 기록된 희생자들을 찾고 있으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생자 명단

〈제주읍〉
강승국康承國
조기홍趙基弘(내도)
강정수姜貞洙(노형)
고순기高順起(노형)
김재규金在奎(노형)
문태희文泰熙(노형)
양진옥梁珍玉(노형)
박태언朴太彦(노형)
현인표玄仁杓(노형)
고기우高棋宇(도두)
박옥선朴玉善(도두)
안선화安善花(삼도)
정창립鄭昌立(삼양)
김봉추金鳳秋(아라)
진병규陳秉奎(아라)
김시종金時宗(영평)
김영순金永順(영평)
부운선夫云善(오등)
강천종康千宗(오라)
박제식朴濟湜(오라)
이태준李泰俊(오라)
정鄭/유순여劉順如(용강)
김의봉金義奉(이도)
김천중金天中(이도)
이봉하李奉河(이도)
진경수秦景洙(이도)
김광수金光水(일도)
김을생金乙生(일도)
고일순高日順(해안)
김택지金澤智(해안)
송두옥宋斗玉(해안)
김두길金斗吉(화북)
안상준安相準(화북)
유대인俞大仁(화북)
김진현金辰鉉(화북)
강태오姜泰五(회천)

〈조천면〉
김용생金龍生(대흘)
고재훈高在訓(선흘)
홍옥례洪玉禮(선흘)
이석우李錫雨(신안)
김태옥金太玉(와산)
안동군安東君(와산)
강봉원姜奉元(와흘)
신오봉申五奉(와흘)
고양문高良文(조천)
김종인金鍾仁(조천)
김대우金大祐(조천)
이윤정李允貞(조천)
한갑생韓甲生(조천)
김동민金東玟(함덕)

〈애월면〉
강평기姜平基(상귀)
강규인姜奎仁(어도)
김명생金明生(어음)
안세홍安世洪(어음)

〈한림면〉
고시천高時千(금악)
양태호梁泰鎬(동명)
김병호金秉鎬(명월)

〈추자면〉
이영식李永植

〈서귀면〉
오군보吳君補(동홍)
오태표吳泰杓(동홍)
고의광高義光(상효)
김명종金明鍾(상효)
오종화吳宗化(서귀)
문복남文福南(중문)

〈대정면〉
이원석李元石(무릉)
강상근姜尙根(신평)
송윤옥宋允玉(영락)

〈남원면〉
강주진康週珍(남원)
현영일玄英一(남원)
홍창부洪昌富(남원)
조병식趙柄植(신예)
이경화李京花(의귀)
정명순鄭明順(의귀)
강태욱康泰旭(태흥)

〈안덕면〉
강문송姜文松(상천)
오봉춘吳奉春(서광)

〈성산면〉
김춘생金春生(신풍)

〈표선면〉
김경선金庚善(가시)
김우규金禹奎)(가시)
김인보金仁保/김인(가시)
김영삼(金永三)/김화(禾)삼(가시)
오용주吳容柱(가시)
문창생文昌生(표선)

〈도 외〉
김동식金東植(경상북도 의성군)
노영근蘆永根(전라남도 함평군)
정창근鄭昌根(전라남도 함평군)
오자현吳子現(충청북도)
이윤주李潤周(충청북도 단양군)
김중전金仲銓(평안북도 구성군)

□ 기 간 연중 □ 대 상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4 · 3사건으로 인한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찾지 못한 희생자
□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4 · 3지원과(☎ 82)064-710-8442~4, 8458) □ 우편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4 · 3지원과 (우편번호) 63122

⊙ 본 명단은 군법회의 수형인명부 상 기록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이름과 지역 등 기초자료가 실제 인물과 상이할 수 있음 ⊙